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촉각'

수도권·여성·30대 여론 악화에 당혹감 확산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 안정 후속조치 검토 "민심 못 읽고 과반의석 토대 독주 태도" 자성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초기 진압으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도와 달리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지 내심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원래 관계자는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협해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강력한 후속대책으로 선제조치를 한 만큼, 공급대책 효과로 투기 움직임이 꺾이면서 부동산 심리도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지도부 인사는 "부동산 대책이 100%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안 대응이 둔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총선 후 양정숙·윤미향 의원 논란, 성추문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쟁위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민심

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입법 드라이브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였다 자성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호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에 지지도가 역전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 이길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후 의석 수만 믿고 야당과 협치 없이 독주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좋게 보일리가 없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까지 일이 계속 터지는데도, 우리는 '월세가 무슨 문제냐'는 민심과 동떨어진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대책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은 탓에 여론 악화가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시장에 끊임없이 강력한 안정화 시그널을 주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시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환율은 4.0%인데, 이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추가 규제에 경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전환율 수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공급대책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서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 도입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관련해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절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재정에 들어가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한강대교 홍수주의보 6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 중이다. 한강대교에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중부지방 6일째 물폭탄... 피해 속출

의암댐서 경찰정 등 3척 전복... 1명 사망·5명 실종 6개 시도에서 이재민 1648명·시설피해 5637건 발생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6일 하루에만 선박 전복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이번 폭우로 떠내려간 수초를 고정하는 작업에 나선 경찰정이 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 뒷부분부터 침몰했다.

민간 업체 직원 1명이 탄 고무보트와 시정 기간제 근로자 등이 탄 행정선 등 2척이 구조에 나섰지만 경찰정과 함께 모두 전복됐다.

경찰정에는 경찰관 1명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고무보트에 1명, 행정선에는 시정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선박들은 폭 13m의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하류로 휩쓸려 경찰정에 타고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근로자 1명을 제외한 7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낮 12시58분쯤 의암댐 하류 충성대교 인근에서 탈출 상태로 구조됐으며, 1명은 비슷한 시각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춘천시 남면 서천리

경강교 인근에 긴급구조봉제단을 설치하고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오전 9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골짜기에서는 클럽하우스 장비창고에 뒤편 야산의 토사가 떨어닥쳐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가 간신히 구조됐다.

이들 3명과 탈출 과정에서 다친 3명 등 6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골절 등으로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접한 과천시에서는 오전 5시쯤 축대가 쓰러지면서 빌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가구 주민 19명이 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충남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오전 5시쯤 태안군 고남면 가정주항에 정박 중이던 소형 어선 10여척이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고 뒤집혔다. 일부는 정박한 줄이 끊기면서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갔다.

안면읍 백사장항 해수욕장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캠핑장으로 넘쳐 들어오면서 야영객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텐트 4동과 승용차 4대도 침수됐고, 해안과 캠핑장 사이 방파제 100m가 무너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6일 발생한 의암댐 인명 피해를 제외하고도 16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중부권 6개 시도에서 991가구 164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5637건으로 파악됐다. 주택 1831곳과 비닐하우스 150동 등 사유시설과 도로·교량 1047곳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 기간 누적강수량은 강원 철원이 753.5mm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712mm, 강원 화천 580.5mm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에도 403.0mm의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충북 제천과 충남 아산에도 각각 416.0mm, 328.5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이번 주말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부지방에는 8일까지 200~45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통제, 대피 등 조치를 강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미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응급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화·협의통해 의대정원 문제 해결하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자체 촉구

정부는 6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로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

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의원 4연임 금지”... ‘국회 신뢰회복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6일 윤 의원의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의 당선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의 의

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조·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대한민국의기도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합기도협회

활동사항
·년 4회 합기도승단심사 ·학생·청소년 학교폭력예방 호신술보급
·교육감기 학생합기도대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합기도대회 개최

소속소장

□ 서귀포시	성산 홀룡체육관 T. 782-5398	천제연로 진무체육관 T. 738-1990
	중앙로 강무체육관 T. 732-0080	동홍동 재강합기도장 T. 732-8773
□ 제주시	서사라 합기도창민관 T. 752-4574	도남 용호합기도도남관 T. 753-2694
	삼양 용호본관 T. 726-2336	화북 명문화북도장 T. 756-3519
	인화 명문인화도장 T. 900-9005	신광 노형특무관 T. 713-8665
	한라 연동특무관 T. 711-7588	월랑 명문신제주도장 T. 746-9340
	하귀 황호도장 T. 713-7470	·협화: 064-752-4574

임원현황
·회장 강성훈 주원총합간섭(주) 대표이사
·상임부회장 김완석
·부회장 한은성(명예) 강병임 허철준
·스포츠조정위원장 윤영일 (제주법치피해지원센터 사무처장)
·이사 김대봉 고병운 김현중 양홍석 오창용 이남숙
·이양현 이희자 조한식 최대권 탁용우 현중은

제주특별자치도합기도협회 회장 강성훈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동행세일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종전식 꺾속형 보청기
490만 → 150만! 98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9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뱅킹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